



가 정 통 신 문

(우)54634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35길 41 (영등동) (<http://www.namsung-g.ms.kr>)

전화 063)857-3736

담당자 : 김영경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겨울의 길목 자녀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탑승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노력, 부모님과 학교가 함께 합니다.

작년 10월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등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녀에게는 헬멧 등 안전 보호 장구 착용 의무와 안전 이용 수칙 등을 교육하고 실천하게 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학부모님 등 학교 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언론보도) ① 전동 킥보드로 행인 친 중학생.... '면허정지 수준' 만취(국민일보, 2022.11.25.)

② '사고 급증' 전동킥보드, 보행자 치면 징역 5년(동아닷컴, 2022. 11.24.)

◆ (사고 주요 원인) ① 헬멧 등 인명 보호 장구 未 착용 ② 차도에서 운행 중 화물차, 버스, 택시, 중장비 등과 충돌

③ 승차정원(1명) 초과 운행(2명 이상 탑승)

▶ 전동 킥보드 안전이용 수칙

1. 안전 보호 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손목 보호대 등) 착용한 후 탈 것
2. 정원 초과(1명만 탑승 가능)하여 이용하지 말 것
3.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4.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젖어 있거나 평평하지 않은 표면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5.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
6.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반드시 사고 조치를 할 것

※ 즉시 정차 → 부상자 구호 → 경찰서 신고 → 정황증거 확보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홍보 자료



2021 개정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2021. 5. 13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강화(2021)]

(요약)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다. 개정 법규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로 운전, 약물 운전 등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2018년: 225건 / 2019년: 447건 / 2020년: 897건).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에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보호 장구(안전모 등) 미착용, 동승자(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등화 장치 미작동, 과로·약물 운전, 음주운전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강화(2021)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3년 11월 14일

이리남성여자중학교장 (직인생략)